

오피니언

테마칼럼

정체로 등장하기

대안공의 문제

빛고래에 살며

정명·문화·미술

이제는 성숙해질 때



안톤 솔츠

고된 육체노동에 한국의 미래가 걸린 시기는 지나 갔다. 창조성과 기발함이 21세기의 새로운 사상이며 한국이 새로운 세기에 성공하려 한다면 좀 더 큰 책임감과 자립심을 발휘해야 한다.

한 친구가 언젠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들 중 하나는 누구도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서양인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다수의 한국인이 성인이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린애처럼 (다소 유치하기까지도 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나 자신도 자주 그의 의견에 동의하게 된다. 이같이 순진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신기하게까지 여겨질 정도다. 어찌 보면 피터팬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때가 되면 성장하고 자신의 인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생각한다.

한국에서 살아 온 지난 몇 년간 나는 많은 한국인이 왜 어린이처럼 보이는지 종종 생각해 보기도 했고 또한 그 이유가 근본적인 문화 차이에 기인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보자면 독일에서는 항상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자라나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부모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가능한 오랫동안 부모들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나는 매 번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학생들의 행동을 보며 이러한 차이점을 곧 발견하게 된다. 이곳 대학생들은 독일의 대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독일 중, 고등학생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 이는 이 아이들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린 성인들의 잘못은 아니다. 그들 중 단지 몇 명도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거나 스스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내가 독일에서 학생이었을 때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살며 그들 자신을 뒷받침하려고 부업을 했고 거의 그들의 생활을 영위했다. 그들은 누구와 연애하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부모님에게 허락을 묻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독일 부모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 부모들에게는 확실히 악몽과 같이 들릴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 어떤 안 된다고 본다.

만일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인생을 항상 좌우해 버린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며, 모든 이가 어떤 이로부터 통제를 받고 또한 그들이 진정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찾아내려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세계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연을 보자면 이는 인생과는 다르다. 어린 새로서 당신은 부모님의 동지를 떠나야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아가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젊은이가 부모님의 동지에서 전혀 떠나려 하지 않고 대신 부모님이 지어 놓은 동지에서 그들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간다. 물론 어느 누구나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그래

왔으며 이러한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나는 자립은 창의성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내가 보기에 이는 한국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지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문제의 해결책을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고 항상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시대는 변했다. 한국은 더 이상 왕정이나 독재에 의해 통치되지 않으며 막강한 재벌들은 이제 그들의 근로자를 쫓겨왔던 이전의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바다 너머 더 욕심 노동력을 발견하고 그들의 자신들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지금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그들의 손으로 그들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것이다. 내 생각엔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지난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되었고 마침내 더 나아가 첨단기술과 서비스 사회로 변화해갈 때 나타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본다.

고된 육체노동에 한국의 미래가 걸린 시기는 지나갔다. 창조성과 기발함이 21세기의 새로운 사상이며 나는 한국이 새로운 세기에 성공하려 한다면 좀 더 큰 책임감과 자립심을 발휘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리라 믿는다.

(조선대 독어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높이 낮춰야 고용대란 피할 수 있다

사상 최악의 고용 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산업과 고용의 빠대인 제조업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올 상반기 안에 고용인원이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제조업 취업자는 402만8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의 412만7천 명에 비해 2.4%인 9만9천 명이 줄었다. 3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에 수조 원을 투입하는 등 그동안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왜 이 모양인지 답답할 뿐이다.

이처럼 심각한 구직난 속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때아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광주지방 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기업체가 원하는 인원은 1만3천438명이지만 채용인원은 1만95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중소기업 역시 9천886명을 채용하고 싶어하지만 채용인원은 7천691명에 그치고 있다. 기록적인 실업

난 속에서도 약 5천여 명의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구직자의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자 중 대기업 취업자는 10명 중 1명 일인데도, 상당수 구직자가 임금 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중소기업을 기피해 실업자로 남는 것이다. 이는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한 실업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얘기와도 같다.

이와 함께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는 것도 인력난의 한 원인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정작 직무능력이 떨어져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대책도 취업 훈련을 '맞춤형'으로 바꾸는 등 현실화 돼야 한다. 지금까지 시장의 요구를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취업 과정을 개설하고 지원금을 쏟아붓는 것은 소중한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경찰 '용산 참사' 반성은커녕 여론조작이라니

경찰이 용산 참사의 책임소재를 묻는 방송사의 인터넷 여론조사에 조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경기·경남·경북 등 각급 지방경찰청이 28일 소속 경찰관들에게 '문화방송 100분 토론 인터넷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를 요망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직접 전화로 인터넷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해 일선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경찰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과잉 진압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사자인 경찰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시기와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산 참사의 쟁점은 시위진압에 동원된 경찰력 행사가 적법한 방법으로 이뤄졌느냐이다. 즉 불법 시위가 불법 진

압을 정당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테러진압에 동원되어야 할 경찰특공대가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진압작전을 벌여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과잉 진압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용산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자여야 할 경찰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반성은커녕 여론조사에 적극 개입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만 키울 뿐이다. 더욱이 인터넷 여론조사 참여 강요가 강경 진압 여론을 무마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막기 위한 여론조작 시도라면 이는 국민 기만극이다.

실령 불법·과격 시위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경찰은 과잉진압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은 용산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正道일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현시님

근표년 올해는 소의 해다. 소파는 입이 무겁고 마음이 굳어서 한번 걸심하면 행동은 빠르지 않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있다고 한다. 소는 한곳에 있기를 좋아하며 시간은 새벽 1~3시 사이를 축시라 하며 계절은 겨울, 방향은 북쪽이다. 우리 조상님들은 소를 생구(生口)라 불렀으며, 생구란 한술밥을 먹고사는 하인이나 종을 일컬어 말하며 한 식구라는 의미로서 동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는 어떻게 합니까?"하니 "사람이 소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것과 같이 하라"고 말했다. 다시 대안이 "어떻게 보임하오니까?"고 물으니 "소먹이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소를 지켜보되 남의 발굽을 밟지 못하게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대안산사는 크게 깨닫고 다시 묻지 아니하였다. 절 집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소에 비유하며 수행은 야생으로 자란 소를 길들이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래서 절의 가풍을

소리대로 소피 해를 살아가자

소와 불교도 무관하지 않다. 부처님의 성씨는 고타마라 하며 고타마의 뜻은 '가장 좋은 소' '거룩한 소'란 뜻이다. 부처님은 자주 소를 불교의 깊은 뜻에 비유해서 설법하셨다. 초기 경전이 증일 아함경 목우품, 방우품에서 수행자의 선법 수행 방법을 소치는 일에 비유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사찰 대웅전 벽화에 동자가 소를 찾아가는 그림인 열 가지 심우도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소로 형상화하여 선승들이 마음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목우가 품, 소를 길들이는 집안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도 선교하는 교역자를 목사라고 한다. 양치는 목자는 양을 기르듯 하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 일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쥐의 해 미국발 한파를 교훈 삼아 올해는 들직한 소처럼 묵묵히 모두가 합심하여 잘살아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여야 한다.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서민 생활들은 IMF때보다도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실감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음지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는 나눔으로부터 시작이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공동체의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주웠다고 자랑스러워할 것도 도움받았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다. 높은 산이 있어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나눔은 자연스러움으로 순리이다. 우리 모두가 자연스러운 순리대로 살아가자. <무등산 원효사 주지>

재택 아르바이트, 알고보니 단단계

얼마 전 재택근무하면서 나이 불문, 성별 불문이라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고 노력하기에 따라 2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회사를 발견했다. 다음날 회사로 나가봤더니 소꿉친구 홍보하는 재택 아르바이트였고 회사에서는 1주일간의 교육 일정을 잡아줬다.

높이다 보면 그게 포인트로 쏠려서 전부 다 수익으로 돌아가니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말이 좋아 재택 아르바이트였지 그게 단단계 업체거나 물건 판매 영업을 하는 일이었다. 그동안 시간 뺏기고 교통비 버린 게 아까웠다. 이런 피해를 보는 구직자들이 어디 한두 명일까 싶어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경희·광주시 광산구 대신동

기고



이진영

지난 며칠 전 광주 케이블 TV를 보게 되었다.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건설 사업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모세, 5·18 단체를 대변한 민 모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반 시민인 내가 알기로는 아시아문화의 전당을 건립하기 위해 구 전남도청 건물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 본관 건물과 종합 민원실로 쓰였던 그 옆 건물은 5·18의 상징성을 감안, 그대로 보존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지역민 모두를 매우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대형 국제 사업은 통상 당초의 계획보다 늦어지는 게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의 전당이 과연 목표연도에 건립이 될지도 걱정이 되는 마당이다. 또한 필자는 이 논란을 보면서 속에서 우리 지역이 과연 문화의 도시나 민주 도시인지 솔직히 자괴감이 든다.

5·18 정신이 담긴 모든 건물과 시설을 100% 보존 존치하는 것이 최선이겠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존치기로 하고 그 밖의 건물은 모두 철거하는 것이었던 같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공과 입찰을 거쳐 낙찰된 건설업체가 설계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5·18 관련 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뒤늦게 당시 구 전남도청 회계과 등이 사용했던 본관 옆 건물까지 보존되어야만 5·18 정신을 더 확고하게 계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5·18 관련 단체가 철거를 반대함으로써 광주 전남은 물론 현안으로 떠오르자 이를 공문화하여 지혜를 모으자는 뜻으로 TV토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업은 참여 정부의 국제사업으로 채택된 광주 최대의 사업이자 광주의 미래가 걸린 역사적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이 건물 1동의 철거

으나 공간구조상 그것이 어렵다면 5·18 단체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단이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미 보존이 확정된 건물이 꽤 있는 상태이니만큼 철거논란을 빚고 있는 건물 1동은 미흡하나마 리모델링이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하는 방안도 차선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5·18민주화운동은 당시 헌법을 유린한 군부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이었고 정의가 요청되는 시대에 죽음을 무릅쓰고 핏물이었기 때문에 광주 전남은 물론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민주의 성지로서 그 역할을 발휘해 이 문제도 슬기롭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 사업이 하루빨리 계속되기를 바란다.

<재광민주항우회 감사>

교복공동구매, 교육청·학교장이 직접 추진해야

아이가 이번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가네 벌써부터 교복값이 걱정된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 교복값에 거품이 끼여 생산 원가에 업체총판과 대리점의 3단계가 거치면서 마진이 불고 여기에 매장 관리비가 추가돼 9만원짜리 교복이 20만~30만원 대로 경총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해마다 신학기가 오면 학부모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주체가 돼 공동구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학부모들끼리 서로 단합하는게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주도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복구입 문제는 지역 교육청과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나서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 매년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신학기 교복을 구입할 때마다 학교와 업체의 담합 또는 뒷거래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구매를 실시해 교복값을 크게 낮추면 학부모들의 오해와 잡음은 저절로 없어지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성희·목포시 측후동

無等鼓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짜증나는 발명품'은 가라오케(Karaoke)다. 최근 영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라오케가 비디오 게임기, 휴대폰, 자명종 시계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그 이유는 의외로 심겁다. 불후의 명곡을 음치들이 불러서 망쳐 놓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라 (일어로 가짜 또는 비어 있다(空)) + 오케(오케스트라의 줄임말)는 1971년 일본에서 발명됐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가라오케 대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이다. 노래방이라는 이름으로 최고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전국에는 3만3천여 개의 노래방이 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대부분 금영(시장점유율 약 65%)과 TJ(태진) 미디어(약 35%) 제품이다. 두 회사 모두 컴퓨터로 만들어진 음원을 사용하는 '미디 반주기'를 생산하

고 있다. 최근 보아, 소녀시대 등을 보유한 SM 엔터테인먼트그룹 이수만 회장이 서울 강남에 '이수만 노래방' 1호점을 내고 노래방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 회장이 내세운 것은 음원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르는 웨이브 반주기다. 실제 연주된 음악을 기기에 담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가수처럼 느껴지게

한다. 가수가 립싱크로 노래 부를 때 배경 음악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수만 노래방'은 'SM엔터테인먼트'라는 브랜드와 품질, 좋은 음원을 무기로 노래방 반주기 업계를 위협할 태세다.

전국적인 프랜차이즈사업을 준비한다고 하니 곧 광주·전남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영, TJ와 벌이는 노래방 삼국지가 시작됐다. /김일환 여론제작부장 kih8@kwangju.co.kr

노래방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체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